

오피니언

테마칼럼

- 건강과 생활, 생 바로알기, 호남 문화, 법과 질서



조현중

희경루 난간에 기대어

일찍이 중국의 시상 두보(杜甫)는 드넓은 동정호가 내려다보이는 악양루에 올라 우국충정을 눈물로 노래했다.

그러다가 전설 같은 희경루(喜慶樓)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다. 1430년(세종 12년) 광주는 불미한 사건으로 광주목(光州牧)에서 무진군(武珍郡)으로 강등되는 불명예를 경험한다.

당시 상소의 논의는 주도한 이선제(李先齊) 등은 "임금이 은혜를 내림에 있어 심어 언 시선을 가진 이 시는 춘망(春望)과 함께 학창시절의 동경이었다.

무등산록의 정원(亭園)과 장엄한 시편(詩篇)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그 뒤의 일이다. 면양정, 송강정, 소쇄원, 환벽당, 취가정, 독수정, 명옥헌 등과 멀리 적벽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누정(樓亭)은 경관뿐 아니라 계산공류의 산실이 다.

리라. 그리고 마침 태수 안철석(安哲石)이 옛 공북루(拱北樓)터에 광주를 대표할 누각을 세우게 된다. 그를 사람들이 이를 경축하고 희경으로써 누의 이름을 지어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태수에게 청한다.

1451년 당시 신수주는 희경루기에서 누각의 규모가 정면 5칸 측면 4칸이며 장엄함이 동방의 으뜸이라 적고 있다. 지금의 남원 관현루나 진주 축서부, 밀양 영남루와 같은 웅장한 규모인 셈이다.

1536년 심인공은 재건축에 이르는 과정을 기록하면서 새로이 담장을 단장하고 화려한 단층을 하여 더욱 장엄해진 희경루의 난간에 기대어 바라보는 경관을 상기한다.

의 반쪽임과 저녁의 그림자, 계절의 변천과 삼라만상의 아름다움 등 수려한 경치를 바라볼 수 있다고 했다. 누각은 소설되고 또 중건이 이루어지다 결국 자취를 감추게 되지만, 동국대학박물관의 희경루방화도(喜慶樓榜畵圖)는 당시의 모습을 오늘에 전한다.

희경루에 대한 깊은 연구와 시인적 공감을 바라다면 광주학의 우선 실천과제로 설정되어도 좋다. 하지만, 이미 박선홍 선생께서는 '광주 100년'에서 총장주 광주우체국 터로 위치를 추정하신 바 있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고칼럼



일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책이 한 권 소포로 왔다. 친한 친구가 트위터에 올린 짧은 메시지, 그리고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틈틈이 적은 글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서 보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때 바라다본 바다의 노을이 눈에 선하다. 뉴욕에서 함께 소임을 살 때는 단풍이 센트럴파크로 소풍을 간 적이 있다.

을 보면서 나는 홀로 남모르는 미소를 짓곤 한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책 속에는 짧지만 깊이 있는 사색과 고뇌의 흔적이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쉬운 언어로 수놓아져 있다.

기고



나석주

함께여서 행복한 '나눔 바이러스'

'테레사 또는 슈바이처 효과(Teresa & Schweitzer Effect)'라는 말이 있다. 이는 남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거나 나눔을 옆에서 보기만 해도 인체의 면역기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일컫는다.

이렇게 나눔의 가치를 알고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바이러스가 되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다. 광주도시철도공사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 공사의 사회공헌사업은 지난 2004년 지하철 개통과 함께 시작됐다.

그러나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단순한 기부활동이나 일회성 봉사가 아닌 공사만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려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봉사를 하고자 했다.

시내버스 종점 환경·시설 열악 개선해야

지난 토요일 오후, 회사를 마치고 시내버스를 탄 뒤 짐을 자다가 실수로 버스의 종점까지 갔다. 한참을 자던 중 운전기사님이 어개를 흔들며 깨우며 다 왔으니 하차하라는 말을 하게

게 보아온 풍경이지만 시내버스 종점은 처음이었다. 시외 고속버스의 터미널은 일반 승객들을 위한 휴게시설, 소풍 등 모든 부분이 완벽하지만 버스의 특성상 시내버스는 그런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스 기사의 업무 대기와 배치업무가 대부분 일 종료 안다. 그렇다면, 승객들의 안전한 운송과 운전전 책임자 할 버스 기사님들의 휴식과 휴게시설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데 내가 본 시내버스 종점의 그런 시설은 너무 열악하고 부족했다.

버스기사들은 충분한 휴식을 통해 다음 운행에 준비해야 하지만 휴게시설이 너무 빈약하면 기본도 편치 않을 것이다. 특히 화장실에 가보니 냄새가 나고 청결하지 못해 이용하기에 영 불편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과 비교하면 너무 큰 차이가 났다.

시설

위기의 광주·전남 재정 탈출구는 없는가

자치단체의 재정 충실도를 평가하는 전남의 재정력 지수가 4년째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이고, 광주·전남의 재정력 지수도 6대 광역시 중 가장 열악하다고 한다.

나스' 상태에 있다. 자체 수입으로 행정 경비의 10%밖에 충당할 수 없는 셈이다. 지방재정의 악화는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핵심이긴 하나 자금의 심각성은 현 정부의 지방정책을 추진하는 바람에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이 크게 줄었고 정부가 맡아야 할 사회복지비 지출을 지방에 떠넘겨 그만큼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 레미콘업계 전면파업 방치 안 된다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전국 레미콘업체들이 시멘트가격 조정과 건설업체 납품대가 인상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문화전당, 여수엑스포 마무리공사 등 주요사업 차질은 물론 영세 레미콘업체들의 연쇄 부도마저 우려되고 있다.

고와 같다는데 문제가 있다. 골재비 등 상승으로 가격이 너무 높아서 겪고 있는 관에 불과 7개월 만에 가격을 올린 것은 그야말로 황포나 다름없다.

광주·전남 99개 업체를 비롯, 전국 900여 레미콘 업체들은 예고했던 대로 22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시멘트가격을 조정해주거나, 건설사들이 납품대가를 올려주지 않는 한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레미콘업계는 시멘트값 인상분만큼 레미콘가격도 m당 5만6000원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 인상해 줄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있지만 꿈쩍도 않고 있다. 대형 시멘트사와 건설사 사이에 끼여 이리저리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파업이라는 최후 수단을 선택한 것이다.

無等鼓

로마제국의 실권을 장악한 율리우스 카이사르(시저)가 처음으로 단행한 개혁조치가 달력 개정이었다. 당시 로마에서 사용하던 달력은 기원전 7세기 제2대 왕 누마가 정비한 태음력이었다.

11월과 12월 사이에 끼워넣어 없었던 뒤 이듬해인 기원전 45년 1월 1일부터 율리우스력의 시행에 들어갔다.

율리우스력



이들이 파업에 나선 것은 쌍용화학·동양시멘트 등 대형 시멘트사들의 일방적인 가격 인상 때문이다. 시멘트 공급사들은 지난해 6월 가격을 t당 5만2000원에서 6만7500원으로 30% 올린 데 이어 올 1월 7만7500원으로 또다시 14.8% 인상했다.

고리우스'로 대체됐다. 하지만 11분14초의 오차를 판정하는데 무려 1627년이나 걸린 것을 보면 율리우스력의 정확도를 짐작할 만 하다. 국민의 상당수가 정교회 신자인 러시아에선 개신교나 가톨릭의 크리스마스(12월 25일)보다 13일 늦은 1월 7일을 성탄절로 기념하고 있다. 율리우스력의 영향력이 지금도 여전히 보여주고는 사례다.

Table with 2 columns: 광주日報 (G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t lists publication details,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rates.

▲나제필·광주시 서구 벽진동